

알파인 경기장 공사장 장비대금 체납 논란

업체 20억 지급 요구 공사중단

정선 활강경기장 테스트이벤트가 내년 2월6, 7일 개최하기로 확정된 가운데 시공사가 장비대금을 체납, 일부 업체들이 공사를 중단하는 등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. 9일 정선 알파인 경기장 토목공사 현장에는 흙을 실어 나르고 있어야 할 대형 트럭들과 굴삭기 등이 멈춰선 채 서 있었다. 경기장 조성을 맡고 있는 함백건설 협력업체로 토목 부문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A사가 지난 9월 이후 지급해야 할 장비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. 대형 덤프트럭과 굴삭기 40여대는 A사로부

터 9월 이후 지급돼야 할 장비대금 20억여원을 받지 못했다고 8일부터 공사를 중단한 채 대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.

도는 이에 따라 함백건설 측에 체납한 장비대금 해결을 촉구하고 있지만 함백건설 역시 협력업체인 A사에 대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체납된 장비대금을 대신 지급할 수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. 도 관계자는 “시공사 측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장비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지급이행 보증에 대한 가입류 등도 검토하고 있다”며 “토목공사는 대부분 마무리돼 내년 테스트 이벤트에는 문제가 없을 것”이라고 말했다. 정선=이명우기자

아하! 그렇구나

공동수급체의 법률관계(혼합 방식)

지방계약의 경우에는 공동이행 방식과 분담이행 방식을 혼합하지 아니하면 입찰 진행이 곤란하거나 계약목적 달성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, 공동이행 방식과 분담이행 방식을 혼합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할 수 있다.

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 분담 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되, 공동이행은 해당 구성원들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.

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지만, 공동이행 부분을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 비율과 분담 내용은 ①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나 ②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, 해산,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 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 내용이나 출자 비율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지만, 일부 구성원의 분담 내용이나 출자 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는 없다.

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하고, 권리·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

할 수 없다.

공동수급체 구성원은 ①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, 또는 ②파산, 해산, 부도, 그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,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.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, 해산,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이를 이행하며, 공동이행의 경우는 해당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한다.

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 면허, 실적,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.

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 공사에 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. 다만 공동이행 부분은 해당 구성원들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.



길기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

“내년 건설투자 5% 증가”

KDI, 타기관 전망치보다 2%p나 높은 까닭은...



주택분양 호조, 회복세 지속
토목부문 부진도 완화 될 것

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(KDI)은 내년 건설투자가 5.0%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. 3%안팎에 머물고 있는 경제연구기관들의 컨센서스보다 2%포인트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.

KDI는 9일 발표한 ‘하반기 경제전망’에서 내년도 건설투자 증가율이 5.0%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. ▶관련기사 2면 이는 지난 5월 상반기 경제전망(3.9%)

대비 1.1%포인트 상향 조정된 것으로 경제연구기관 중 가장 높은 3.4%를 제시한 현대경제연구원보다 1.6%포인트, 가장 낮은 산업연구원(2.9%)보다는 2.1%포인트 웃도는 수치다.

KDI는 내년 건설투자가 주택분양 호조에 따른 건설수주 확대에 의해 양호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분석했다.

올해 건설수주가 큰 폭으로 증가한 데

함입어 건축부문의 회복세가 지속되고 토목부문의 부진도 완화되면서 내년 건설투자가 5%선으로 올라설 것이라는 진단이다.

실제 KDI는 건축부문을 중심으로 건설투자가 회복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건설수주와 주택거래량 등 선행지표도 개선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.

박경남기자 knp@2면에 계속

1면서 계속 = “내년 건설투자 5% 증가”

전년 동기 대비로 건물건설이 올 1분기 2.5%, 2분기 4.0%, 3분기 8.8%로 올라서면서 건설투자도 같은 기간 각각 0.6%, 1.6%, 5.7%로 증가폭이 확대됐다고 KDI는 설명했다.

건설수주도 건축부문과 토목부문 모두 실질적이 개선된 가운데 기저효과도 작용하며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.

올 1분기 건설수주는 전년 동기보다 55.4% 늘어났고 2분기와 3분기에도 각각 50.0%, 49.8% 확대되면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. 건축허가면적 증가율도 1분기 24.3%, 2분기 27.3%, 3분기 52.3%로 눈에 띄게 개선되는 모습이다.

게다가 올해 건설투자를 떠받친 주택시장 또한 양호한 지표들이 이어지면서 건설투자 회복세에 힘을 보탤 것으로 KDI는 전망했다.

올 3분기 아파트 인허가는 전년 동기

대비 82.7%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미분양주택 수는 3만2524가구로 감소하며 추세적인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.

KDI 관계자는 “올해 건설투자 확대에 건축부문이 회복세를 이어가고 토목부문도 부진이 완화될 것”이라며 “내년 건설투자는 올해보다 1.0%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”고 말했다.

앞서 KDI는 올해 건설투자 증가율을 상반기 경제전망(2.9%)보다 1.1%포인트 올린 4.0%로 수정했다. 박경남기자